

전문가 칼럼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지은행관리원 신설

강경학 | 한국농어촌공사 경영지원농지관리이사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세계 교역 불안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생겨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식량자급률이 45.8%,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한 세계 5대 식량수입국이다. 먹는 식량의 절반 이상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밖에 없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농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농지가 매년 각종 개발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보니, 기존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달하는 1만6천ha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관리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서 이를 실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농지은행은 1990년 농지매매사업 등으로 시작하였으며, 2005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법제화되었다.

식량안보, 농지 확보가 그 첫걸음

올해는 농지관리 업무를 추가한 농지은행관리원이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의 결을 앞두고 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기존 농지은행 업무에 농지 상시 조사, 농지정보시스템 관리, 농지시장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관리 역할을 추가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효율적 국토관리를 위해 2016년 산하기관인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2020년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개편했다. 최근에는 LH 사태에 따른 투기근절 대책으로 국토교통부에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농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내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시기적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지은행관리원이 주어진 기능과

장에서 농지를 상시 조사·관리하고 농업인과 농지위원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전담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기 위한 인건비 등 적절한 예산 지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업무담당자의 사내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증을 받아 공신력 있는 농지은행 전문가 자격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농지은행전문가 120여명을 양성하여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1명 이상 배치해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갈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농지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자 농업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의 기능과 역할을 공고히 하고 명실상부한 농지관리기구로서 운영되도록 정착시키는 것이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삶의 질을 높이는 확실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